

고용노동부, “연령·학력 제한 의혹”,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감독 착수

- 나이·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적 채용 관행 여부 집중점검
- 위법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 엄정 조치

고용노동부(장관 김영훈)는 최근 언론에 보도*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연령·출신학교를 제한하는 내용의 채용지침과 관련하여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9월 16일부터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.

* '26. 9. 9. KBS, '80년대생 이하·11개 대학 출신만'... '입구컷' 지침 만든 한화에어로

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장의 채용공고, 내부 채용기준, 평가자료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실제 채용과정에서 차별적 기준 적용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등 채용 전반에 대해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다.

감독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, 시정명령 등 엄중조치하고,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다.

향후에도 공정한 취업경쟁을 저해하는 채용 차별 행위가 없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,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청년고용정책관 청년채용기반과	책임자	과 장	조우균 (044-202-7432)
		담당자	사무관	구강미 (044-202-7443)
담당 부서	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	엄대섭 (044-202-7454)
		담당자	사무관	심종민 (044-202-7459)
담당 부서	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조아라 (044-202-7553)
		담당자	서기관	박종길 (044-202-7528)